

Market Intelligence

1.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

[참고자료] 주요 경제지표

2. 주간 이슈 4

- 유라시아 협력의 새로운 단계: AIIB와의 연계 협력

주요 동향

◇ 미국 FOMC, 기준금리 동결 ·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 시사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월 기준금리를 0.25~0.50%로 동결, 올해 연준 금리 인상도 2차례에 그칠 것으로 밝혀 연말 기준금리는 0.9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엘런 의장은 “고용은 호조지만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고 물가상승률 목표치 2% 달성도 불안하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이 미국 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 설명

※ 미국 물가상승률(%): 0.5 ('15. 11) → 0.7 (12) → 1.4 ('16.1) → 1.0 (2)

- 미국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해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및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도 4년 6개월만에 가장 크게 하락

※ 원/달러 환율 : 1,172.5('15.12.30)→1,238.8(2.25)→1,193.4(3.16)→1,170.0(3.17)

◇ 일본, 기준금리 -0.1% 동결 · 경기 판단은 하향 수정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지난 1월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0.1%)를 유지하고, 연간 80조엔(약 836조원) 규모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현행 자산매입규모도 유지하기로 결정
- 일본 국내경기과 관련해서는 “신흥국 경제 감속 영향 등으로 수출·생산에서 둔화가 보인다”며 경기판단을 하향 수정
- 한편, 구로다 총재는 금융시장의 위협을 막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할 여지가 있음을 의회에서 밝힘.

주요 동향

◇ 중국, 전인대 폐막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6.5~7.0% 설정

- 중국 전인대가 폐막(3.16)됨에 따라 2016년 중국 주요 경제 정책 및 예결산안,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요강 등이 확정
- 13차 5개년 계획안에는 공급과잉 해소와 적자에서 허덕이는 좀비기업 퇴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샤오캉 사회’ 구축 등이 담김.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6.5~7.0%로 제시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5%로 설정, 홍콩과 선전 간 증시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통’은 연내 시행 재확인

◇ 주요 신흥국 증시 반등 ·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 전환

- 2월 이후 주요 신흥국 주가가 반등하고 외국인 자금이탈이 진정되는 등 신흥 시장에 대한 낙관적 시각 확대
- 신흥국 주가는 ‘15년 4월 고점 이후 ‘16년 1월 저점까지 27% 하락한 후 3월 현재 11% 반등, 동기간 선진국 반등폭(5%)의 2배 이상을 기록했으며 특히 3월 이후 5% 상승하는 등 오름폭 확대
- 브라질은 정권교체 기대로 32%(1/26~3/11), 아르헨티나는 채무협상 해결 등으로 40%(1/20~3/10) 급등하는 등 대다수 신흥국가 상승
- 외국인 투자자금도 ‘15.7월~’16.1월간 550억 달러(월평균 79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였으나, 2월 2억 달러로 급감한 뒤 3월에는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8개월만에 유입세로 변화
- (배경) 작년 하반기 이후 신흥국 증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했던 △유가하락, △중국 불안(위안화 하락),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이 완화되는 등 주로 대외적 여건 개선에 기인

① 외환시장

구 분	'15년말	'16. 3. 11	'16. 3. 18	전주비
₩/US\$	1,172.5	1,193.1	1,162.5	△30.6
₩/100¥	974.1	1,052.0	1,042.8	△9.2
CNY/US\$	6.4912	6.4955	6.4727	△0.0228
¥/US\$	120.4	113.4	111.5	△1.9
US\$/€	1.0930	1.1177	1.1310	0.0133

② 채권시장

구 분	'15년말	'16. 3. 11	'16. 3. 18	전주비
한국 국고채(3년)	1.66	1.55	1.50	△0.05
미국 국채(10년)	2.27	1.93	1.90	△0.03

③ 주식시장

구 분	'15년말	'16. 3. 11	'16. 3. 18	전주비
한국 KOSPI	1,961.31	1,971.41	1,992.12	20.71
미국 DJIA	17,425.03	17,213.31	17,602.30	388.99

④ 해운시장

구 분	'15년말	'16. 3. 11	'16. 3. 18	전주비
BDI 지수*	478	388	395	7
HRCI 지수**	449	451	450	△1

*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컨테이너선 용선지수

⑤ 유가

유 종	'15년말	'16. 3. 11	'16. 3. 18	전주비
WTI유 현물	37.04	38.50	39.44	0.94
Brent유 현물	37.28	40.39	41.20	0.81
두바이유 현물	32.19	36.37	37.42	1.05

- ◆ 2016년 1월 전세계 57개국이 참여하는 AIIB가 출범하여 정부가 추진해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AIIB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AIIB와의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1.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구상

□ 국제유가 하락과 한반도 정치상황 변동으로 인한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의 필요성 대두

○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협력추진 환경 변화

-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경제협력 추진 여건이 점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러시아는 극동러시아 인프라 개발 등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에 정부 재정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도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

○ 한반도 정치상황으로 인한 유라시아 협력 환경 악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북핵 문제로 추진이 중단되어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 간의 3각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새로운 차원의 유라시아 협력 필요

○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 확대

- 중국은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운송·물류·농업 협력을 추진하며, 극동러시아 개발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
- 러시아와 중국은 2016년 3월 제1차 중-러 건설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건설 부문의 협력 강화 움직임

- 중·러 정상회담(2015 5월 8일)에서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간 협력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의 FTA 추진
-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에 따른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필요
 - 중앙아시아 지역은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자개발기구와 중국 등의 투자를 통해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서 높은 진출성과

표 1. 중앙아시아 에너지 인프라,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현황

국명	프로젝트명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르길 가스전 및 화학플랜트(39억 달러) -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8.2억 달러) - GTL 프로젝트(31억 달러) - 칸덤 가스전(20억 달러)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하쉬 석탄 화력발전소(49억 달러) -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42억 달러) - 잠빌 해상광구 - 탱기즈 유전 확장(27억 달러) - 카라바탄 복합화력발전소(3400억 원)
투르크메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키니쉬 가스탈환설비(15억 달러) - 키얀리 플랜트 생산공장 건설(34억 달러) - GTL 플랜트 건설 사업(30억 달러) - 세이디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20억 달러)

자료: 언론 참조 저자 작성

2. 중국의 일대일로와 AIIB의 출범

(1)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으로서의 일대일로

□ 신(新)실크로드 구상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발표

- 일대일로의 목적과 구상

- (개념 제기)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에서 주변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결, 금융협력, 경제통합의 개념을 강조하고, 9월과 10월 해외 순방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제안. 2014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통합한 **일대일로** 개념 언급
- (전략 발표) 2013년 11월 제18기 3중 전회에서 실크로드 경제협력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공식 대두되었으며, 2015년 3월 보아오 포럼 및 정부정책 보고에서 **일대일로 전략** 발표
- (목적) 실크로드 경제벨트 내 각 지역 간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물류 확대, 중국의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 (일대일로 6개 경제회랑) 북서·서·남쪽 방향으로 6개 경제회랑* 구축 계획
 - *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중국-몽골-러시아, 유럽-아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 반도

그림 1. 일대일로와 6대 경제회랑



자료: 연합뉴스 2015.04.21

□ 중국의 일대일로 물류협력 추진 방안

-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육상, 해상 운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국이 역내 물류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주변국가들과 철도 협력을 추진

-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두 개의 화물열차 루트 개설

- * 정저우-우르무치-카자흐스탄-벨라루스-러시아-함부르크 연결 노선 및 하얼빈-치타-모스크바-함부르크 연결 노선

(2)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출범과 일대일로 본격 추진

□ AIIB의 출범과 목적

-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제안하여 세계 57개국의 참여로 2016년 1월 AIIB가 설립되었으며, 유라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
- 기존에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ADB가 빈곤퇴치 등의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비해, AIIB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목표

표 2. AIIB와 ADB의 비교

구분	AIIB	ADB
설립목적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아시아 지역의 빈곤 해소 및 역내 투자, 기술원조
회원국	57개국	67개국
자본금	1,000억 달러	1,628억 달러
지분율	중국 30.34%, 인도 8.52%, 러시아 6.66%, 독일 4.57%, 한국 3.81%	일본 15.7%, 미국 15.6%, 중국 6.5%, 인도 6.4%

자료: 공식 홈페이지, 언론 참조

□ AIIB를 통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 AIIB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
 - 일대일로의 추진 사업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규모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이 AIIB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최대 지분 보유, 중국관료 출신의 총재 임명, 본부의 베이징 위치 등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지분 이외에 5,000만 달러의 특별기금을 출자하여 회원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원 계획
 - 26.6%의 투표권을 보유하여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주요 안전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여,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총재 선임이나 협정문 변경과 같은 주요 안건의 거부 가능

3. AIIB와의 연계를 통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

□ 유라시아 지역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

- 유라시아 국가들은 운송,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며, 기존 설비가 노후화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황

표 3.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제물류지수

국가	순위	분야별 순위					
		통관	물류 인프라	국제 운송	물류기업 경쟁력	물류 추적	적시성
러시아	90	133	77	102	80	79	84
카자흐스탄	88	121	106	100	83	81	69
우즈베키스탄	129	157	148	145	122	77	88
투르크메니스탄	140	122	146	116	155	134	153
타지키스탄	114	115	108	92	113	119	133
키르기즈	149	145	147	127	151	145	155

주: 2014년 전체 평가대상국은 160개 국가
 자료: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5.

- 신도시 건설 및 도시 현대화(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엑스포(카자흐스탄) 등 대규모 행사 개최, 경제특구(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플랜트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 수요

□ AIIB를 통한 우리 기업의 유라시아 지역 투자 필요

- 설립 첫해인 2016년에는 ADB, EBRD, WB 등 다른 개발은행과의 협조 용자나 공공부문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점차 민간부문 투자를 늘릴 계획
 - 2016년 5~10건의 투자 이행 목표로 예상 투자 규모는 최소 5억 달러에서 최대 12억 달러이며, 2017년에는 15~25억 달러, 2018년에는 25억~35억 달러의 투자 계획

- 2018년 말 투자대상부문은 교통 35%, 에너지 25%, 물·도시 25%, 기타 15% 등으로 전망되며, 공공부문을 통한 대출 비중은 70~80%, 민간부문 대출 비중은 20~30% 수준으로 예상¹⁾

표 4. 사업준비 및 승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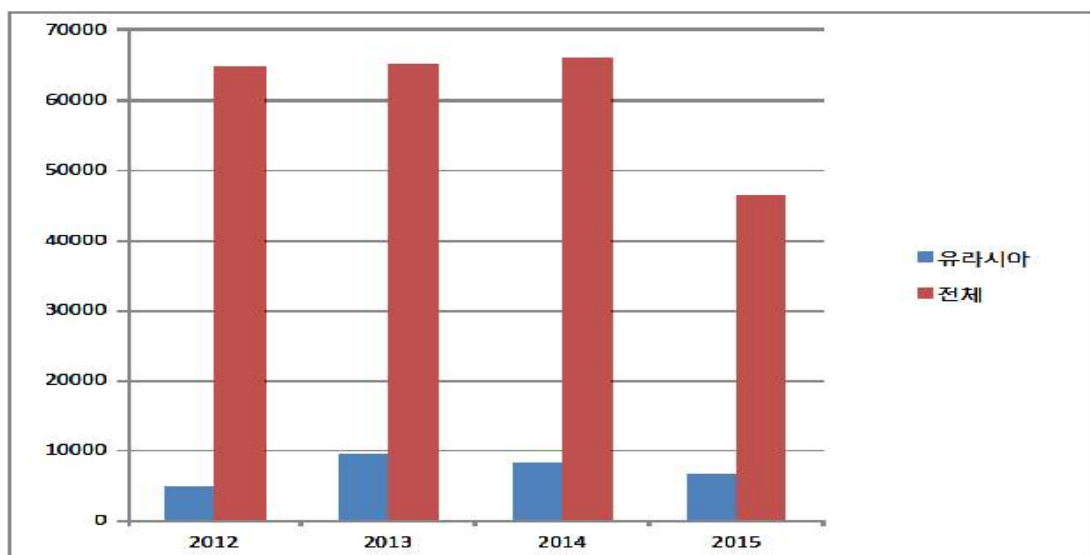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준비	30건	30~40건	40~50건
승인목표	5~10건	10~20건	15~25건
대출규모	5~12억 달러	15~25억 달러	25~35억 달러

자료: 대외경제장관회의 (2016.02.25)

- 우리 기업의 기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성과 지속, 확대 필요
- 우리 기업의 세계 전체 건설수주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라시아 지역 수주액이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5%(2013년 14.5%, 2014년 12.6%)에서 2015년 14.2%로 두 배 가까이 상승

그림 2. 최근 4년 간 한국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1) 대외경제장관회의 자료. 2016년 2월 25일.

4. 정책 추진현황 및 방안

□ AIIB내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기업진출 지원

- 한국은 AIIB의 주요 회원국으로 활동 전망
 - 우리나라는 역내 4위, 전체 5위의 지분을 보유하고 한국인이 5명의 부총재 가운데 한 명의 부총재로 임명되었으며, 12명의 이사직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다자개발기구에 비해 큰 영향력을 보유
 - AIIB 지역 사무소나 AIIB 연구소의 국내 유치 추진
-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AIIB와의 협력
 - 우리 정부는 AIIB 사업 발굴, 타당성조사 등에 사용할 100억 원의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우리기업의 사업 참여를 기대
 - EDCF를 활용하여 유라시아 수혜국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위주로 AIIB와 공동사업 발굴 검토
 - AIIB 회원국들과 한국의 기관 및 기업들 간 정보교류, 공동 정책연구 실시

□ AIIB 출범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방안

- 부처간 협의기구 설립과 해외인프라 투자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으며, 6개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
 - 기존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를 '해외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로 개편: 협의회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수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
 - 기존의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2016년 상반기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계획
- 향후 이러한 민·관 합동 TF와 협의체를 통해 AIIB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

□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AIIB, 일대일로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 프로젝트 투자
 - 일대일로 경제회랑에 위치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AIIB 운송, 에너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의 높은 가능성
 -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가들은 해양으로의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운송인프라 개선을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플랜트 건설을 적극 추진

< 중앙아시아 각국의 인프라 투자 전망 >

- 카자흐스탄은 2018년 아스타나 엑스포 개최 예정: 엑스포 관련 인프라나 시설과 함께 국가 전반적으로 철도, 도로, 항만, 도시 현대화 등의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
- 우즈베키스탄의 가스 플랜트 및 태양광 단지, 아제르바이잔의 석유화학단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화학 플랜트 등이 추후 건설될 전망

-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추진되는 KSP, ODA 등의 경제협력과 AIIB 사업 연계방안 모색

□ AIIB의 세 번째 지분보유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 활성화 및 남북협력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협력 지속 필요
 - 향후 AIIB 프로젝트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러, 한·중·러 협력 가능성 고려
-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시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 러시아는 경제발전을 위해 극동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중·일로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항만개발·물류 등의 사업들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

- 서방의 대러 및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를 고려하여 극동러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학술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추진 지속

확인자	해외경제연구소장 권우석
작성자	선임연구원 조영관

첨부 1: AIIB의 조직구성

첨부 2: 중국의 6대 경제회랑

첨부 3: 최근 4년 간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현황

AIIB의 조직 구성

참여국	57개국(역내 37, 역외 30) 참여 * 미국, 일본 등은 참여하지 않음 ²⁾
자본금	출자자본금은 1,000억 달러, 납입자본금은 출자자본금의 20%
지분율	지분의 75%는 역내국에, 25%는 역외국에 배분 (* 괄호 안은 지분율, 투표권) - 중국이 최대(30.34%, 26.6%)이며, 인도(8.52%, 7.51%), 러시아(6.66%, 5.93%), 독일(4.57%, 4.15%), 한국(3.81%, 3.50%)이 상위 5대 지분 보유국 - 기타 역내에서는 호주(3.76%, 3.46%), 인도네시아(3.42%, 3.17%), 역외에서는 프랑스(3.44%, 3.19%), 브라질(3.24%, 3.02%) 순으로 높은 지분율 보유
한국 자본금	출자자본금 37억 3,880만 달러이며, 실제 납입자본금은 7억 4,776만 달러(향후 5년 간 자본금을 분할 납입 계획)
조직구성	- 총재는 중국 재정부 前부부장인 진리췌이며, 5년 임기로 연임 가능 - 3년 임기의 부총재 5명에는 한국, 영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출신이 임명
의사결정구조	- 총회(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이 확보됐을 때 '중대결정' 의결) - 이사회(12명의 비상임 이사회 [역내 9명, 역외 3명] 로 구성되며,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권한 보유, 분기 1회 개최)

자료: 언론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미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지분과다 보유에 따른 지배구조 투명성 결여와 국제개발은행 역할수행을 위한 규범 부재 등을 이유로 들어 가입을 하지 않고 있음.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AIIB 출범 선언과 향후 논의의 방향", <23권 44호>, 2014.12.

중국의 6대 경제회랑

경제회랑 구분	포함 국가	주요 노선	중점 조성 분야
중국-파키스 탄	중국, 파키스탄	중국 신장카스-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카라치-과다 르	철도 및 도로, 석유 및 가스 수송관, 광케이 블, 산업단지 등
방글라데시- 중국-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다카-중국 쿤 밍-인도 콜카타-미얀마 만 달레이	철도 및 도로
중국-몽골- 러시아	중국, 몽골, 러시아	·중국 징진지-울란바토르- 울란우데, 모스크바 ·중국 하얼빈-창춘-선양-만 저우리-러시아 치타	고속운송철도
新 유라시아 대륙교량	중국, 러시아, 카자 흐스타,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네덜 란드	중국 려운강-정저우-시안- 란저우-우르무치, 카자흐 스탄-러시아 스몰렌스카야 -브란스크-벨라루스 브레 스트-바르샤바-베를린-로테 르담	국제 철도건설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 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 스탄-카자흐스탄-중국 알 라산카우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 탄-키르기즈-중국	석유 및 가스 수송관
중국- 인도차이나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중국 난닝-하노이-태국 방 콧-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철도 및 도로

자료: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일대일로” 경제회랑 건설 추진 동향. 2015년 8월 6일.

최근 4년 간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현황

(단위: 천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95개국	64,880,678	104개국	65,211,657	99개국	66,009,930	108개국	46,144,348
1	사우디	16,167,286	사우디	9,974,896	이라크	8,532,667	투르크메니스탄	4,970,480
2	이라크	9,636,306	호주	5,855,538	쿠웨이트	7,738,888	쿠웨이트	4,960,682
3	카자흐스탄	4,161,106	우즈베키스탄	4,533,986	러시아	5,604,752	베트남	4,497,133
4	베트남	3,416,574	베트남	4,043,632	베네수엘라	5,067,710	사우디	3,592,155
5	싱가포르	3,345,337	싱가포르	3,516,304	알제리	4,387,802	베네수엘라	2,901,826
6	아랍에미리트	2,958,902	말레이시아	3,475,541	아랍에미리트	3,735,929	이라크	2,713,975
7	알제리	2,758,138	카타르	2,747,924	베트남	3,387,316	싱가포르	2,578,291
8	쿠웨이트	2,752,967	투르크메니스탄	2,471,166	사우디	2,951,312	카타르	2,132,225
9	베네수엘라	2,200,640	이라크	2,450,337	캐나다	2,523,470	호주	1,860,173
10	카타르	1,841,526	베네수엘라	2,225,183	말레이시아	2,438,609	미국	1,771,991
11	인도네시아	1,709,931	터키	2,127,801	우즈베키스탄	2,040,603	중국	1,512,048
12	칠레	1,604,249	모로코	2,114,540	싱가포르	1,769,657	인도네시아	1,503,939
13	중국	1,563,259	쿠웨이트	2,070,754	카타르	1,669,868	칠레	1,225,346
14	태국	1,162,989	아랍에미리트	1,830,670	필리핀	1,603,613	요르단	1,051,771
15	볼리비아	847,710	카자흐	1,636,055	나이지리아	1,388,584	필리핀	918,501
16	인도	758,916	알제리	1,400,551	이집트	1,009,858	조지아	872,213
17	나이지리아	754,009	인도	1,294,350	인도네시아	999,216	동티모르	738,167
18	필리핀	721,363	오만	1,123,162	영국	938,444	오만	701,232
19	우루과이	662,603	태국	979,270	인도	888,481	바레인	655,190
20	말레이시아	563,274	몽골	860,654	칠레	870,536	브루나이	622,598
21	콜롬비아	506,286	아제르바이잔	806,272	중국	793,376	카자흐스탄	527,100
22	방글라데시	473,805	라오스	763,349	터키	704,443	아랍에미리트	381,509
23	투르크메니스탄	467,639	인도네시아	758,746	투르크메니스탄	554,178	멕시코	369,964
24	모로코	419,757	스리랑카	709,340	오만	430,355	나이지리아	338,444
25	홍콩	353,763	브라질	665,113	태국	392,822	태국	335,630

주: 붉은 색 표시는 유라시아 국가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